

01

안전보건공단, 새 슬로건 발표

“안전은 권리입니다”



“안전은 권리입니다”

- 공단은 ‘안전은 권리입니다’를 안전문화캠페인 새 슬로건으로 지난 1월 발표했다.
- 새 슬로건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원·하청, 국적, 성별을 불문하고 안전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.
- 공단이 안전문화캠페인 슬로건을 변경한 것은 2010년 6월 ‘조심조심 코리아’를 채택해 활용한지 9년여 만이다.
국가 정책 변화 및 날로 높아지는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 개발이 필요했다.
- 슬로건 새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 기법을 적용해 이름 그대로 ‘안전과 권리가 하나’라는 점을 강조했다. 색깔도 황금색을 선택해 공단 정책의 핵심 원칙인 골든 룰이 안전 확보에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.



- **박두용 이사장은** “사업주에게 안전은 선택과 배려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, 노동자는 일터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”며 “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안전을 기본권리로 누릴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- 공단은 이번 새 슬로건을 최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해 TV·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.

